

그러거나말거나 왕건은 이 모든것에는 관심이 없는듯 제 일에만 열중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 시기 왕건은 부인을 맞아 신혼재미에 빠져있었다. 부인은 정주고을의 큰 부자인 류천궁(얼마전부터 류천궁은 호구와 조세, 공납 등의 업무를 보는 대룡부령이 되었다.)의 딸이었다.

4. 응지를 펼치다

금필이 서원경을 떠난것은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대야성(또는 대량성이라고도 함. 경상남도 합천)공격에 실패하고 돌아온 직후였다.

금필은 지금 후백제의 서북변방을 공격할 임무를 받고 떠난 길이었다.

얼마전 후백제의 견훤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였었다. 후백제의 존재를 과시하는것과 함께 신라로 하여금 후백제를 인정하고 함부로 맞서나오지 못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군사적으로는 궁예로 하여금 이후에 신라로 더 내려오지 못하게 저들이 그 길목을 차단함과 동시에 장차 신라로 밀고들어갈 전초기지를 만들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견훤은 신라와의 첫 싸움에서 무참하게 패하였다. 신라가 아직은 그 정도로 쳐서 쓰러질 약한 나라는 아니었던것이다. 대야성을 지키는 신라군사들은 예상외로 완강했다. 보름이 넘도록 성을 에워싸고 파도식공격을 하였지만 끄떡도 안했다. 마지막 무렵에는 성밖으로 쏘어나와 역습을 거듭한 끝에 후백제군을 오십리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이를 갈며 돌아선 견훤이 완산주에 돌아와 며칠을 앓은 뒤에 새롭게 방향을 정한것이 신라의 서북방이였다. 서원경은 차지하지 못하였

으나 그 서쪽지역은 어떻게 해서나 차지해보자는것이였다.

운주(홍성), 레산, 당진, 아산일대를 차지하고 거기에 강한 방어진을 구축함으로써 궁예가 서원경지역에서 더이상 서쪽으로나 남쪽으로 가지를 쳐나오지 못하게 하려는것이였다.

실은 신라의 대야성보다 먼저 손을 대였어야 할 지역이였다.

만만한 신라를 먼저 때려놓고 그 기세로 서북방공격을 잇자던노릇이 시작부터 뒤틀리고만것이였다.

전환의 이 기도가 송악에 알려진것은 그가 파한 완산주군사의 선발대가 이미 금강을 넘어선무렵이였다.

이 정보를 받은 궁예는 그에 대처할 임무를 위해 리혼암과 유금필을 직접 불러주었다. 리혼암에게는 송악에 둔치고있는 자기의 수하군사를 데리고 가도록 하였고 금필에게는 성방어군사의 일부를 갈라서 지휘하도록 하였다. 리혼암은 좌군을, 유금필은 우군을 맡게 했다.

송악을 떠나오기 전날 저녁 금필은 왕건을 찾아가 조언을 받았다. 왕건은 서원경 서쪽지역을 꼭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원경 남쪽으로 전과를 확대해나가도 그 서쪽지역을 차지하지 못하면 공고한 점령이 못된다는것이였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경 남쪽으로부터 내리공격하면 그만인 리혼암이보다 서쪽과 남쪽을 다 밀고나가야 하는 금필의 부담이 더 큰것이였다.

금필도 이 점을 류의하고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건 궁예가 왕건과 경쟁을 건것 같기도 하였다. 금필이 왕건의 부장이고 리혼암이 궁예의 수하장수인것이 묘한 대립을 이루고있는것이였다.

《형님을 제껴놓고 직접 나에게 임무를 주는 그 속내가 심술스럽소이다.》

금필은 미간을 모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도 그럴것이 궁예는 이보다 한발 앞서 능산을 마군장군에 봉하여 쇠두레로 보내고 술희는 병부령수하의 군량조달 대리로 옮겨놓았었다. 뒤이어 금필을 왕건의 수하에서 떼내어 전방으로 내보내는것은 결국 왕건의 수족을 토막내자는 속심 같았던것이다.

《그런 말은 듣기 거북하니 그만하게.》

왕건은 금필의 말을 제지했다.

금필은 머뭇거리며 왕건을 바라보았다. 왕건은 말과는 달리 얼굴은 웃음을 띠우고있었다. 알만 한 사람들끼리 그런 말은 그만두자는 뜻을 담고있는 얼굴이었다.

왕건이라고 궁예의 속심을 모를리가 없는것이였다. 왕건이 있어 오늘의 궁예가 있고 마진이(궁예는 얼마전에 나라이름을 마진이라고 고치였다.)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에 다르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것인가. 궁예는 왕건의 힘을 빌어 성공의 탑을 한단한단 쌓아 올릴 때마다 왕건을 귀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하고있었다. 그것이 간혹 가다 한번씩 드러나곤 하는것이였다.

《아무쪼록 몸조심하게.》

《예, 그럼 전... 참, 형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야지. ...》

금필이 일어서자 왕건이 그를 제지했다.

《인사는 인사고 저녁이나 함께 하세.》

왕건의 부인이 상을 들여왔다.

금필은 왕건의 부인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들고 정중히 례의를 표했다. 그리고 달디단 술맛을 온몸으로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였다.

왕건도 흡족한 얼굴로 술을 들었다.

금필을 바라보는 류씨의 얼굴에 은근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류씨가 왕건과 혼례를 올린지도 어느덧 한달을 넘고있었다.

금필은 두해전 왕건이 정주고를 류천궁의 집에 묵으면서 지금의 부인을 취하던 때가 떠올리며 슬며시 미소를 머금었다. 속이 깊고 궁냥이 넓은 정주의 류천궁이 구렁이 닭알꼭이듯 왕건을 구슬려 자기 딸을 안겨주던 그 저녁에 누구보다 이를 기뻐하며 축배를 높이 든 사람이 바로 금필이였다.

이미전에 류천궁의 딸을 보며 금필은 그 자색과 지성미가 왕건과 가히 짝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였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는 서둘러 나서는데 아니어서 속으로만 바라면서 은근히 가슴을 조여왔었

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되었으니 금필의 기쁨이 어떠했겠는가. 하지만 왕건과 류씨부인과의 백년해로가 시작을 뿔 때처럼 일사천리로 이루어진것은 아니였다. 첫 상면이 이루어진 그날 밤이 지난 뒤 정주 고을을 떠나 전장을 종횡무진하는 속에 실은 금필이도, 왕건자신도 류씨부인을 까맣게 잊고있었다.

바빠난것은 류천궁이였다. 딸은 식음을 전폐한채 독수공방하고있는데 왕건은 종무소식이였던것이다.

아무리 전장의 사정이라 하여도 이럴수가 있다. 생각다 못해 류천궁은 딸을 데리고 송악으로 올라와 때마침 전장에서 돌아온 왕건에게 무작정 떠맡기였다.

그제야 사정을 알게 된 왕건의 일가친척들이 골방에 모여 의논을 거듭한 끝에 조심히 왕건에게 말을 빼였다. 가세로 보나, 용모와 지혜로움으로 보나 한치도 기울지 않는 천상배필이니 혼인을 하는것이 좋으리라는것이였다.

왕건은 정중히 무릎을 꿇은채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안방을 꾸미고 반년을 기다려 류씨부인의 머리칼이 다 자란 뒤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였었다.(류씨부인은 왕건과 하루밤 자리를 같이한 이후로 왕건이 찾아오지 않자 인차 절에 들어가 중으로 지냈었다.)

《참, 자네도 이제는 안방거취를 해야겠네.》

왕건이 화제를 돌렸다.

《나만이 너인을 취하였으니 동생들 보기가 민망하기 그지없네 그려.》

왕건은 그윽한 눈길로 금필을 바라보았다.

《저에 대한 걱정은 마소이다. 나 같은게 무슨 너인을...》

금필은 얼굴을 붉혔다.

《무슨 소릴 하시오. 나보다도 웃사람이 아니요? 내가 제 좋은 생각만 하고있었소. 욕 많이 하시오.》

왕건은 진심으로 말하고있었다.

《이번 일만 치르고는 마련을 보도록 하시오. 꼭 그리하시오.》

《알아들었소이다.》

금필은 왕건의 다심한 말소리에 눈물이 나올듯 하여 황황히 일어섰다.

《전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금필이 하직인사를 올리는데 류씨부인이 금필을 멈춰세웠다.

《잠간만!》

그리고는 두툼한 보꾸레미 하나를 금필의 앞에 내밀었다.

《속옷가지들이오이다. 가서 갈아입도록 하옵소서.》

《형수님! 고맙소이다.》

금필은 눈앞이 흐려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금필은 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다나니 녀인의 다심한 손길을 모르고 자랐다.

철이 들어 그중 가까이 대해본 녀인이 있다면 이전 주인 송씨의 딸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사이도 정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였기에 주인과 하인사이의 담을 넘어보지 못하였다.

금필이 처음으로 녀인의 인자한 손길을 느낀것은 바로 류씨부인에게서였다. 정주에서 왕건이 류씨부인을 취하고 떠나는 날 아침도 일찌기 잠자리에서 일어나보니 금필과 술희의 머리맡에 각기 한개씩의 앵두화채그릇과 미음그릇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전날 밤늦도록 과음한것을 생각해서인지 시원한 화채와 함께 낯알기운을 보충하라고 자상히도 정성을 기울인것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보다 더 감동을 자아내게 한것은 금필과 술희에게 갈아입을 새 비단속옷가지들을 내놓은것이였다. 게다가 군복까지 밤새 빨아 말리워서 다림발까지 세워놓았었다.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사와요.》

이마며 볼을 익은 능금알처럼 붉히며 류씨는 청고운 소리로 권하였었다.

그의 매력은 은근한 미소에 있는듯 했다. 목소리까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고 그저 은근하게 들렸다. 주인인 왕건의 의형제동생들이라서

나이는 아래어도 형수된 마음을 기울여주는것이리라.

그때처럼 그는 지금도 금필에게 정을 기울이고있는것이였다. 타고난 성품 그대로였다. 용모도 마음씨도 행동거지도 모두 한가지로 그저 부드럽기만 한 가식이 전혀 없는 녀인이였다.

이런 류씨부인이기에 금필은 그앞에서는 언제나 친동생이 된 심정이 되곤 했다. 하기에 이렇듯 말우에 앉아 행군해가는 속에서도 금필이 다시금 류씨부인을 떠올려보는것이였다.

런 이틀을 강행으로 이어댄 끝에 금필은 드디어 운주고을근처에서 후백제군과 마주쳤다. 후백제군이 당진, 아산까지는 올리밀었을줄 알았는데 아직 그에는 채 미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허나 고을을 털어 군량을 보충하고 옹근 하루를 휴식한 뒤여서인지 후백제군은 기세가 사뭇 덩딩했다. 반면에 숨가빠 달려온 금필의 군사들은 예상외로 맥을 추지 못하였다. 접전을 벌리자마자 뒤걸음질을 하는것이 그동안 성에 틀고앉아 배가죽만 불군 꼴이 험등하게 알려였다.

《멈춰서지 못하겠느냐! 비겁하게 어디다 대고 뒤걸음질이나?》

금필의 고탈소리에 물러서던 전령이 주춤거리며 벗어섰다.

《누가 먼저 뒤걸음질쳤느냐? 썩 나서지 못할가?》

금필이 다시한번 노성을 터뜨리자 두명의 군사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적을 앞에 두고 뒤걸음을 쳐? 너희들도 고구려후손들이 맞느냐?》

《창황중이라 그만...》

《용서해주신다면 죽기로 죄를 씻겠소이다.》

두 군사는 얼굴을 붉히며 용서를 빌었다.

《너희들은 내뒤를 따르라. 자, 군사들! 나를 따라 앞으로!》

금필은 쌍검도를 휘두르며 앞장에서 내닫기 시작했다.

와!-

군사들은 다시금 후백제군을 향하여 전진했다.

금필은 간산신고끝에 겨우 후백제군을 멈추어세웠다.

잠시 숨을 돌리고난 금필은 군사를 둘로 나누었다. 부하인 장수

김언에게 절반 넘게 군사를 주어 정면으로 맞서게 한 뒤 금필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운주고을을 에돌아 내려갔다. 운주의 썩 아래에 있는 부여성을 치려는것이였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감도 없지 않았으나 주저없이 내달았다.

부여성 성주는 견훤이 총애하는 장수로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 군사도 군사려니와 이 일대의 백성들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이들은 견훤의 백제재건을 따르고있었다. 후백제의 부흥강병을 바라는 이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다. 물 한모금, 쌀 한알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전해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었는데도 물러설 때면 지고 가지 못하는 낯알섬들은 모조리 불살라버리였다.

금필은 민심마저 잃은 지금의 자기 처지가 매우 불리하다는것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있었다. 형세는 금필에게 어렵게만 되어있었다.

그러나 금필은 단념할수 없었다. 운주를 점령하자고 해도 어떻게든 부여고을을 타고앉아야 했다. 부여고을만 타고앉으면 뒤를 끊기운 운주가 손들고 나왔을것은 뻔한 리치였던것이다.

금필은 왕건이 성을 공략할 때마다 사전에 성안의 실정을 알아보고 방략을 세우던것을 생각하였다. 그렇다, 나도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보자. 강한 적에게도 약한 틈은 반드시 있는 법이다.

금필은 우선 간자를 파하기로 하였다. 뒤걸음찼던 두 군사가 자진해나섰다. 저녁에 떠난 이들은 새벽무렵에 돌아왔다. 이들이 쫓겨온 후백제군사의 입을 빌어 성안의 실태를 파악할수 있었다. 부여성안의 군사는 절반나마 줄어있었다. 운주를 지원하러 속아보낸것이였다.

부여고을은 금강하류 중허리에 위치하고있는데 고을 서쪽변두리를 감싸며 흐르는 금강이 천험의 장애를 조성해주고있었다.

금필은 금강이 밀물의 영향으로 하루에 두번씩 바다물에 밀려 불어난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이 강도 패하와 다를바없구나.)

금필은 강물이 바다물에 밀려 흐름속도가 최대로 떠지는 시각을 노려 강을 건느도록 령을 내렸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자시초무렵(밤 11시경) 금필의 군사들은 물밀듯이 성안으로 쳐들어 왔으며 고을은 드디어 함락되었다.

그러나 고을안의 백성들은 드세게 반발해나섰다. 군사들의 시체를 넘으며 맨주먹으로도 마구 달려들었다. 이들을 제지하는데 퍼그나 시간이 걸리었다.

금필은 수하의 군사들이 백성들에게 가하는 행패에 눈이 커졌다.

《백성들에게 손대지 말라!》

금필이 급히 령을 내렸으나 군사들은 들을념을 앓고있었다.

《듣지들 못하느냐? 병쟁기들을 모두 내리라고 하지 않느냐!》

다시금 웨치는 금필의 고탈소리에 비로소 군사들이 주춤주춤 손을 내리었다.

《이 계집들만은 절대로 용서할수가 없나이다.》

군사 하나가 하소하며 가리키는 곳에 두명의 내인이 주저앉아있었다. 그들의 발치엔 활이며 도끼 같은것이 나딩굴고있었다.

《우리 군사 넷을 상하게 했소이다. 이 고약한...》

그 군사는 참지 못하겠다는듯 칼날을 높이 들었다. 금시 내려칠듯 싶은 서슬에도 두 녀인은 눈도 깜빡 안한채 맞받아보고있을뿐이었다.

《아서라!》

금필이 거듭해서 소리쳤다.

《아무리 그러하기로서니 부녀자나 늙은이, 어린것들에게 어찌 칼질을 한단 말이뇨!》

금필의 엄한 추궁에 쳐들렸던 군사의 칼이 굳어졌다.

《어서 칼을 거두지 못할가!》

그제야 군사는 칼을 내리웠다.

이때였다.

핑!-

금필의 귀전으로 칼이 스쳐날았다.

주저앉아있던 두 녀인중의 하나가 금필을 겨냥하여 던진것이였다.

《이결 보소이다, 예익...》

그 군사는 다시금 칼을 들어 가차없이 내리쳤다.
악! 비명소리와 쟁강— 하는 칼부딪치는 소리가 동시에 났다.
녀인은 쓰러졌고 군사의 칼은 빗나갔다. 금필의 칼에 맞았던것
이다.

《변을 당하시고도 참으시겠소이까?》

그 군사가 주먹으로 땅을 쳤다.

《참아야 한다.》

금필은 군사를 위로하고 두 녀인에게로 돌아섰다.

《그대들은 너무하시오. 나는 그대들을 살려주라 하는데 어찌하여
되려 해치려는거요?》

금필이 분을 녹잡히며 침착하게 물었다.

《우리 후백제군사들을 죽인자 후백제백성들을 죽인자와 같사오니
어찌 용서할수 있겠소이까!》

둘중의 나이가 더 들어보이는 녀인이 내쏘는 말이였다.

《뉘라구?! …》

금필은 아연해졌다.

《마진이 우리 후백제와 무슨 원썩진게 있다고 이리하시오이까? 우
린 가만있을수가 없었소이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소이다.》

두 녀인의 부르짖음에 금필은 머리가 아찔해졌다.

(우리가 이들의 원썩란 말이지?)

금필은 온몸의 힘이 순간에 빠지는듯 하여 흠칠 몸을 떨었다.

《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라! 손끝 하나 다쳤다간 용서치 않을
테다!》

《알겠소이다.》

군사들이 머뭇머뭇 분부를 따르기 시작했다.

《성안의 민가들을 수습케 하고 후백제군의 시체를 잘 처리하도록
하라! 이후로는 그 누구든 성안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불손한 발언이
나 행동을 금하도록 하라.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소이다.》

수하군사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금필은 한동안 망연자실하여 서있었다.

서로 부축이며 집으로 돌아가는 두 녀인이 어렴풋이 보이였다.

(내가 저들의 원썩란 말이지! ... 하기는 제 사람들을 죽인자를 은
인이라 할수야 없지 않는가!)

금필은 돌덩이를 삼킨 기분이었다. 가슴이 답답해왔고 숨쉬기조
차 괴로왔다.

세력을 다투는 싸움속에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사무쳐왔다. 지
금껏 밟아온 땅덩어리들이, 무수히 베어버린 생명들이 이 시각 금필
의 마음속을 이름할수 없는 자책감에 휩싸이게 하고있었다.

세상일이 말로 다 통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서로 죽일대기를 하지
않고서도 마음을 합치고 땅을 합쳐 함께 오손도손 살아갈수만 있다
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금필은 고민에 빠져 새날이 밝는줄도 모른채
성안을 오락가락했다.

《장수나리! 성밖에 경계를 파해야 하지 않겠소이까?》

조심히 여쭙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앞서 용서해준 두 군사가 걱정어
린 눈길로 바라보며 서있었다.

《낮참에야 무슨 일이 있겠느냐. 걱정말고 어서 쉬여라.》

금필은 이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그런데 이날 밤에 끝내 일은 터지고야말았다.

후백제군에 의해 성이 포위된것이였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원썩로 절규하는데 충격을 받은 금필이 그만 다
음행동에 주의를 돌리지 못한게 실수였던것이다. 두 군졸의 말을 귀
담아듣지 않고 하루낮동안 성밖의 적정을 살피지 못한데다 모두 성안
에 불박아놓은채 휴식을 한 결과는 예상외로 엄중했다.

후백제군이 부여고을 성밖에 있는 부여산성에 쫓겨가서 숨을 돌리
는 한편 완산주에 급히 알려 지원군을 부른것이였다.

견훤이 최선을 다했으리라는건 뻔하였다. 완산주에서 부여는 곧추
잡아 이백여리밖에 안되였다.

마진군이 완산주의 이백리앞에까지 내려온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는 견훤이었다. 견훤의 궁궐이 벌둥지가 되고 견훤의 수하장수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나왔다. 이들은 부여고을을 에돌아 운주어간의 중간에서부터 포위진을 펴나왔다. 금필이 부여고을에서 탈출해나온다 해도 되돌아가지 못하게 미리 막아놓고보자는 심산이었다. 한편으로 부여산성에 쫓겨와있는 력량과 합세하여 고을성으로 내리공격해 온것이였다.

금필은 후백제군이 이후로 어떻게 나올것인가를 따져보았다. 후백제군이 자기를 사로잡으려 할것이라는 예감이 갈마들자 그는 초조해났다. 장수는 모든것에 대처해야 한다는 초보적인 상식을 잊은것이 이런 화단을 불러온것이였다. 그는 후백제군이 자기의 퇴로를 먼저 차단하리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성안에 있다가는 끝장이였다. 하다면 어디로 빠질것인가?

금필의 머리속에 고을밖의 부여산성이 생각키웠다. 후백제군은 지금 고을을 포위하는데만 급급해있었다. 어떻게든 빠져서 산성을 타고왔어 거기서 방어를 하면서 다음의 행동방향을 또 찾아야 하였다.

그는 대답하게 부여산성으로 맞받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성밖의 후백제군이 잠에 취한 때를 노려 금필은 서남쪽 성문을 열고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 시각 후백제군도 잠을 자지 않고있었으니 이들은 동남쪽 성문을 까고 들어왔던것이다. 금필은 성밖으로 공격해나가는 대오의 후미에 서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후백제군을 막았다.

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아직 금필의 군사는 절반밖에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후백제군은 성문을 까제끼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금필은 온몸의 힘을 다해 후백제군을 막았다.

자기 군사들이 거의 빠져나간무렵 금필은 그만 날아오는 화살에 맞고말았다. 등에 박힌 화살을 뽑을새도 없이 달려드는 후백제군사들을 베어넘기던 금필은 쿵- 하고 울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그는 눈앞이 아뜩해졌다. 군사들이 빠져나간 서남쪽 성문이 줄지에 닫겨버리고만 것이었다.

후백제군사 여럿이 금필에게로 달려들었다. 이 찰나 두명의 군사가 금필을 막아나섰다. 금필이 용서해준 그 두명의 군사들이었다. 한명은 달려드는 후백제군사들을 베어넘기고 다른 또 한명은 금필을 부축하여 길옆의 집 담너머로 밀어던지었다.

《빨리 피하시오이다. 우리 걱정은 마시고...》

두 군사는 반대쪽 골목으로 내뺀면서 적들을 유인해가기 시작했다. 담너머로 떨어진 금필은 가까스로 화살을 뽑아던지고 멀어져가는 두 군사를 가슴조이며 주시했다.

뒤로부터 달려드는 후백제군사의 칼에 한명의 군사가 그만 쓰러졌다.

(아! ...)

금필은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금필은 그런대로 적을 달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나머지 또 한명의 군사를 바라보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말았다. ...

금필은 두시간이 실히 지나서야 정신을 차릴수 있었다.

깨여보니 어둑시근한 움속이었다.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고향소리,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들이 간간이 들려왔다.

(여기가 어딜까?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걸까?)

소스라쳐 일어나려 했으나 마음뿐이었다. 몸은 천근만근으로 내리 드리웠다. 다시한번 힘을 쓰던 금필은 뭔가 이상한 촉감에 흠칫했다. 누군가가 자기를 포근히 감싸안은것 같았던것이다. 온몸을 슬곳이 눌러안고있는것이였다. 부드러운 손가락이 금필의 얼굴에 닿았다.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려주고있었다. 지금까지 한번도 말아보지 못한 향취가 금필의 후각을 자극했다.

(내인이 아닌가? ...)

《거긴... 누구요? ...》

금필이 부르짖었으나 그의 말소리는 입밖에 나지조차 않았다. 입술만 움직거릴뿐이었다.

《여보세요. … 여보세요. …》

웬 녀인이 금필 자기를 부르고있었다.

《랑자는 누구시오? …》

금필은 다시한번 물었다.

《정신을 차리셨군요. 조용하시오이다. 소리를 내면 죽소이다.》

녀인은 귀가에 대고 속삭이였다.

웬 녀인이 자기를 안고있는것을 알았을 때 금필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보호를 받고있는것이 분명하기때문이었다. 그보다는 견훤의 군사들이 이미 성을 되차지한 뒤이고 지금 자기를 잡으러 돌아치고있을것이 뻔한 사실이였기때문이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다니…)

금필은 어금이를 지그시 깨물었다. 모든것이 실패였다.

금필은 난생처음 겪는 패배의 수치감에 온몸을 떨었다.

(내 이제 무슨 닳으로 형님을 뵈온단 말인가. 하기는 형님을 뵈기나 하겠는가.)

금필은 탄식했다. 가슴속에서 후회심이 고패쳤다. 왕건이 얼마나 당부했던가. 이번 일을 잘해야 한다고…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음의 문어구에 누워있다.

금필은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순간의 해이가 이런 실패를 가져왔던것이였다.

(이제 꼼짝 못하고 죽기만 기다려야 하는가!)

금필은 모든것을 포기하고말았다.

《정신차리세요! 정신차리세요!》

녀인이 다급히 흔드는 바람에 금필은 다시 눈을 떴다.

움 한쪽이 트이면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어왔다.

문가에 또 한명의 녀인이 들어서고있었다.

(? …)

《언니예요?》

《응,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니?》

《방금 눈을 떴었는데… 또 정신을 잃었어요.》

《어쩌면 좋을가. 온통 수라장이어서 의원을 찾을수가 없구나.》

《이러다간 사람을 죽이겠어요. 어쩌나…》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한다. 우릴 살려주신분인데…》

(그러니 그 녀인들이었구나. …)

금필은 비로소 어제 자기가 살려주라 일컫던 두 녀인을 상기했다. 원쑤로 치부하며 비수까지 날렸던 그들이 생명의 은인으로 뒤바뀌어 있는것이였다.

금필은 마음의 탕개가 풀려 다시금 정신을 잃고말았다.

…

얼마 있지 않아서 금필은 다시금 정신을 차렸다.

무언가 달짝지근한것이 입안으로 흘러들고있었다.

한모금… 또 한모금…

(야! 물이 달기도 하구나! …)

그사이 갈증에 시달리던 금필은 사발채로 마시고픈 욕망을 겨우 참아가며 야금야금 주는대로 목을 추기였다.

《언니가 이분을 살리는군요. 군사들의 눈을 용케도 피했어요.》

《당분간은 밥짓는 일을 계속 해줘야겠어. 지금 낱알이 나올데는 그곳밖에 없어. 이렇게 한줌씩이나마 얻어낼데가 있으니 다행이다.》

금필은 언니라 불리우는 녀인이 자기를 위해 후백제군사들의 밥짓는 일을 해주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고마운 녀인들이구나! …)

금필은 두 녀인에게 몸을 맡긴채 스프르 눈을 감아버렸다.

한편 성밖에서는 치렬한 접전이 계속되고있었다.

간난신고끝에 부여산성을 차지한 금필의 군사들은 금필의 행처를 찾아 다시금 고을성을 기습해왔다.

전환의 군사들은 성우에서 맹렬히 화살을 쏘아댔다. 그 살비속을

뚫고 금필의 군사들은 엉엉 울며 공격을 계속해냈다.

견훤의 군사들은 이를 보고 착각했다. 금필이 빠져나가 여전히 군사를 지휘하고있는것으로 판단했던것이다.

금필의 군사들은 런 사흘 희생을 거듭하며 이악스레 달려들었으나 매번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중과부적이었던것이다. ...

이무렵 송악에서는 궁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있었다.

리혼암이 서원경 남쪽으로 성과를 확대하여 어느덧 계룡산지에 이른것이다. 실은 유금필의 모험적인 공격으로 견훤의 군사 대부분이 부여와 운주일대로 쫓린탓에 덕을 입어 얻어진 성과였다.

궁예가 이것을 모를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금필의 공로는 물론체하고 리혼암이만 극구 칭찬했다.

왕건은 금필이 걱정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여성이 견훤에게 다시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왕건은 더는 참지 못하고 궁예를 찾아갔다.

《금필이 그 사람을 걱정하는것이요?》

궁예는 룡상우에 비스듬히 기대여 누운채로 왕건에게 수선을 떨었다.

《좀더 기다려보지 않겠소? 그야 리혼암이 같은건 거들떠보지도 않는 맹장이 아니요?》

《제 동생의 일이라 가만 앉아있을수가 없소이다. 대왕전하! 가서 도와주도록 허락해주소이다.》

왕건은 궁예의 이죽거림에 맞설 경황조차 없었다.

《원, 그렇게도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어서 가보시오.》

궁예는 마지못한듯 승낙했다.

그도 자기 령역이 금강계선까지 넓혀지는것을 나빠할리가 없었다. 이 기회에 견훤이 얼마만큼 용을 쓰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었던것이다.

왕건은 살같이 내달렸다.

운주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내리조겨 부여성을 단

숨에 에워쌌다.

견훤의 군사들은 부여성밖에서부터 왕건을 막아나섰으나 이틀만에 퇴각하고말았다. 금필이 이미 휘저어놓은것을 정리하는것이므로 싸움은 이내 결속되었다.

부여성은 왕건의 수중에 들어갔다.

움속에서 보름만에 금필은 구원되었다.

금필은 자기를 구원해주고 치료해준 두 녀인을 잊을수가 없었다.

하여 금필은 이들의 소행을 왕건에게 그대로 여쭙었다.

금필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들은 왕건은 즉시 두 녀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기특한지고, 기특한지고.》

왕건은 두 녀인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들으며 연신 머리를 숙여 사례를 표한 다음에야 송악으로 되돌아갔다.

왕건이 떠나간 뒤에도 금필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차지한 지역을 정리해야 하였고 민심을 안착시켜야 하였다.

전해의 흉년이 영향을 미치고있어 집집마다 절량인데다 한차례의 싸움이 휩쓴 뒤여서 민심은 더욱 어지러워져있었다. 게다가 곳곳에서 이런 기회를 탄 도적무리들이 련속 나타났다.

송악의 궁예가 이곳에 관심을 돌려야겠으나 그는 이무렵에 와서 별나게 번져가고있었다. 송악에 온지 몇해 되지 않았는데 도읍을 쇠두레로 다시 옮길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아직은 소문뿐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만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었다. 그것은 궁예가 쇠두레로 도읍을 옮기려고 벌써 그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궁예의 쇠두레에로의 환도는 이지태의 입바람때문이었다.

이지태는 송악이 왕건의 본거지이므로 공고한 곳이 못된다고 하였다. 패서일대를 포함해서 옛 고구려일대 사람들을 믿을것이 못된다는 설명이었다. 반면에 쇠두레는 궁예의 첫 도읍지인만큼 그의 지지기반이라느것이였다.

지금처럼 질풍노도로 주변을 정복할수 있는것은 쇠두레에서 시작을 잘 뺏기때문이라고 했다. 그 승세를 타고 천하를 거머쥐자면 쇠두레로 다시 가야 한다, 가서 새로이 나라의 틀거리를 세워야 한다, 그것은 고구려도 신라도 백제도 아닌 새로운 나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지금의 기세로 보아 세나라통일은 눈앞의 일이니 다음은 압록수(압록강)를 건너가 룡동을 차지하고 그 넓으나넓은 중원지방을 다 차지하고 통치하는것이 궁예자신의 포부로 되어야 한다고 력설했다.

아지태의 달변에 궁예는 서서히 넘어가고있었다.

원래 의심이 많은 궁예는 자기에게 너무도 쉽게 귀순해온 패서지역 두령들을 은근히 경계하고있었다.

한때는 송악, 패서만큼 자기를 뒤받침해주는데가 없었다. 허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중원경과 서원경세력들이 궁예자신에게 이마를 조아리고있고 한강 남쪽지역도 자기 차지가 되었은즉 거기서도 새로운 지지세력이 형성될것이였다.

(내가 송악에만 움해있을 까닭이 무어람...)

궁예는 후백제와 신라도 쉽사리 자기 수중에 떨어지리라 믿고있었다.

성공의 길에서 과신과 오만이 자라고있었다. 그것이 애초에 들었던 고구려재건의 구호를 쫓버리는데로 탈선하여 오매불망 고구려재건만을 바라며 이때껏 고군분투하여온 왕건이며 금필이 등 고구려출신들에게 실망을 자아내고 격분을 야기시키리라는것을 그는 생각도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곧 궁예자신의 실패의 전주곡이기도 하였다. 허나 아직은 누구도 이것을 예측할수 없었다.

궁예의 기세는 여전히 충천했으며 그는 나날이 비대해지고있었다. 송악에서는 어쩔든간에 금필이 제일먼저 손을 써야 할 일은 기근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차지한 지역이 풍족해야 주둔한 군사도 덕을 입는 법이였다. 그런데 민가에 기근이 들었으니 군사들 역시 그 여파에 휩싸일수밖에 없었다.

금필은 생각다 못해 왕식렴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 시각 식렴은 정주포구에 틀고앉아 군량조달을 말아보고있었던것이다. 식렴은 금필의 연락을 받은 즉시로 식량을 실은 배를 바다로 해서 금강을 거슬러올라 부여성에 갖다대었다.

식렴이 보낸 얼마간의 식량이 금필을 크게 도와주었다.

금필은 식렴이 보낸 식량을 군사들과 백성들이 절반씩 나누어 소비하게 조치하였다.

부여고를 백성들이 그 덕을 보았다. 관청에서 일일이 가호마다 따져가며 호구책을 세워 죽물일망정 배고픔을 면하게 되었다. 도적따위도 자취를 감추었고 다른 곳에서처럼 떼죽음도 나지 않았다. 보리고개를 무사히 넘기고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금필을 칭찬했다. 색다른 무엇이 생기면 싸들고 금필을 찾아왔다. 미처 오지 못할 사정이면 금필이 있는 군막을 향해 한사람뭉을 떠놓고 절을 한 뒤에 먹군 하였는데 이것이 풍속화되어 먼 후날까지도 계속되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부여사람들만은 추석날에 반드시 《고수례》를 부른 다음에는 《금필례》를 부르고서야 음식을 들군 하였다. ...

금필이 이곳을 지키고있는 기간 애타게 그를 생각하는 두 녀인이 있었다. 그를 구원해준 림씨자매였다. 그중에서도 동생이 더하였다.

견훤군사들의 수색을 피해 움속으로 금필을 안아들여간 그 시각부터 금필을 거둔것은 동생인 림씨치녀였다.

그는 금필의 옷을 벗기고 살맞은 자리를 처치했고 살독이 퍼져 고열속에 헛소리를 칠 때는 어린애를 달래듯 감싸안아주었다. 상처가 훤아터지자 제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기도 하며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집을 수색하러 오는 군사들을 얼려넘기는데 든 품은 또 얼마랴. 언니나 동생이나 하나같이 극진하였다.

이들은 운명의 그날 금필을 원썩로 치부하며 비수까지 날렸던(칼을 날린것은 동생이었다.) 자기들을 죄가 없다며 용서해준 그 시각부터 금필을 사모하며 생명의 은인으로 가슴속에 새긴것이였다.

이듬해인 903년 3월 금필은 왕건의 부름을 받고 부여성을 떠나게

되었다.

군사들과 백성들의 배려움을 받으며 성밖을 나와 얼마쯤 달리던 금필은 말을 멈추었다. 림씨자매가 길을 막아나선것이였다.

《저희들을 함께 데려가주소이다.》

이들을 보는 순간 금필은 가슴이 찌르르 저러왔다. 그들이 자기에 게서 무엇을 바라고있는지 짐작이 가기때문이었다.

전날 저녁 송별연이 끝난 시각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들이였다. 제 동생이 금필이를 너무도 보고싶어하여 데리고 왔노라며 이고 온 광주리를 내려놓은 언니는 가타부타없이 술방구리부터 꺼내고는 동생에게 술대접을 들리고 술을 가득 부었다.

《내 동생의 성의이니 사양말고 드시오이다.》

《고맙소이다.》

언니의 독촉에 서둘러 술대접을 받아들던 금필은 동생처녀의 손에 제 손이 닿는 순간 그가 흠칠 몸을 떠는터에 술을 쏟치였다. 찰랑이던 대접의 술이 넘어나며 두사람의 손을 적시고말았다. 처녀는 당황하여 얼른 손을 소매깃안으로 여미는데 처녀의 그 눈과 익은 손을 보는 순간 금필도 부르르 몸을 떨었다.

사실 금필은 방금전에 이들이 대문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닷없이 가슴이 뛰여 당황해났었다. 그것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출현으로 해서 일어난 심리의 파동이였다. 그 파동이 처녀의 여린 손과 부딪치면서 온몸을 울려준것이였다.

그럴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조차 한번도 안아주지 못한 금필의 몸이었다. 외할머니의 품에서 못녀인들의 동냥짓으로 연명하던 짧디짧은 유년시절은 일찌감치 흘러가버렸다. 그뒤로 금필에게 녀인의 손은 더는 바랄수 없는것이였다. 이런 금필을 품어준 사람이 바로 이 처녀였다. 처녀의 손은 금필의 뇌리에 깊이깊이 새겨져서 지워버릴수 없게 자리잡혀있었다.

금필의 가슴이 이처럼 뛰는것은 이성에 대한 감정보다는 모성에 접한 환희의 감정이 솟구친때문이었다. 자기가 이들을 잊을수 없

으며 평생 은인으로 존대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함께 갈마든때문이기도 했었다.

금필은 자기가 이들을 이제까지 한번도 찾아보지 못한것을 후회했다. 하여 다시금 머리를 숙여 사례의 말을 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오이다.》

《난 우리를 아주 잊은줄 알았소이다.》

이렇게 말을 받으며 언니가 이번엔 광주리를 헤치고 검누린 조찰떡을 한개 꺾여 권했다.

《우리 고장에 나는 검은차조이오이다. 금시 쳐가지고 온것이니 어서 맛보시오이다.》

《이곳에도 검은차조가 나는가?! …》

금필이 반색을 하자 언니가 핀잔조로 받아넘기였다.

《나리는 이곳도 다 같은 겨례가 사는 한강토인걸 모르시오이까?》

《참, 그렇겠소이다.》

금필은 이곳도 자기가 태어난 다지홀이나 지금의 송악이나 다 같은 겨례가 사는 땅임을 새삼스레 절감했다.

《고맙소이다. 그사이 한번도 찾아뵈지 못했는데 이렇게 떡까지 쳐가지고 오셨으니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금필이 거듭 치하하자 언니가 손을 내저었다.

《그간에 고을을 돌보느라 로고가 크신 나리이신데 이게 무슨 대수이겠소이까. 생면부지도 그 은공에 절을 해야 할터인데 하물며 우리 목숨을 구해주신 나리께 고작 이렇게밖엔 인사를 못해올리니 송구할뿐이오이다.》

《생명을 구해준 은공으로 말하면야 내가 두분에게서 받은 은공이 더 큰것이온데 정말이지 어떻게 하면 신세갚음을 할지 안타까울뿐이오이다.》

《그건 걱정할게 없소이다. 나와 동생이 죽을 때까지 나리를 따르면서 신세를 갚도록 하겠소이다.》

《마음만 가까우면 천리도 지척이라 하였소이다. 내 여기를 떠나가

도 마음속에 언제나 두분을 모시고 살겠소이다.》

《우리를 마음속에 두시겠다 하시니 되었소이다. 실은 우리 후백제도 따지고보면 옛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한피줄이 아니오이까. 그러고보면 겨례를 하나로 모으시려는 나리의 뜻은 정말이지 그르네가 없는 바른소리오이다.》

금필이 언니의 거침없는 달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아니, 저의 평생의 소원까지 다 알고계시오이까?》 하고 칭찬하자 언니는 섭섭하다는듯 말을 받았다.

《나리께서 우리 고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소이까. 마진은 고구려의 뒤를 이어 겨례를 하나로 만들려는 나라라구요. 백제의 시조이신 온조왕도 고구려시조 동명성왕의 자손이시니 한겨례, 한피줄이 분명하거니와 이전에 이루지 못한 겨례의 통합을 지금이라도 이루어 놓는다면 그이상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소이까.》

《정말이지 식견도 넓으시고 사리도 밝소이다.》

금필이 거듭해서 감탄하자 언니는 한무를 다가앉으며 말을 받았다.

《사람이 제 조상이야 알아야 하지 않소이까. 또 조상이 같고 피줄이 같으면 마음도 같아야 할것이로소이다. 저와 동생이 나리를 해치려 했는데도 도리어 우리를 용서해주시였고 또 우리가 나리의 신상을 지켜드린것도 서로가 한피줄이어서 마음이 한뿔으로 흘러 그리된게 아니겠소이까!》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오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운데 외람된 청을 하나 드려도 받아주시겠소이까?》

《무슨 청이오이까. 내 기꺼이 들어주리다.》

《분명히 청을 들어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렇소이다.》

《하오면...》

자세를 바로하고난 언니가 정색한 얼굴로 금필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우리 동생을 받아주시오이다.》

《?! … 이제 무어라 하셨소이까?》

《동생을 나리에게 맡기오니 받아달라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금필은 놀랐다.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지금 자기에게 청혼을 하고있는게 아닌가! 비로소 말뜻을 알아차린 금필은 얼굴이 해쓱하니 질렸다. 당장에 쿵— 하는 북소리가 가슴속에서 들려왔다.

《그건… 이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청이오이다. 받아들이기가… 진실로 어렵소이다.》

금필은 떠들거렸다. 머리속에선 위—잉 벌우는 소리같은게 들려오기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무언가 아리송하게 여겨지던것이 비로소 바로 이것이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금필이었다. 아닌게아니라 금필은 자기가 이들과 도저히 떨어질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져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간의 결합이라는 인륜대사로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해보았다.

《저 같은것을… 무엇을 보고…》

두서없이 중얼거리며 허둥대던 금필은 열결에 동생처녀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이내 눈길을 내리깔아버렸다. 마주친 처녀의 눈빛이 너무도 강렬하고 눈부셔서였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하며 다시금 눈길을 들여보니 처녀는 어느새 제 언니의 등뒤로 몸을 가리워버렸다. 바르르 떨리는 어깨만이 보이였다.

(! …)

금필은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처녀가 자기를 얼마나 사모하고있는가를…

금필을 간호해주는 사이에 처녀의 마음속엔 어느새 사랑의 씨앗이 움터올랐었다.

금필이 움에서 나와 군영으로 돌아가는 날 나직이 속삭이며 《감사하오이다. 두분의 수고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그 말이 매일, 매 시각 처녀의 귀전을 울려주고있을것을…

처녀의 눈에 비친 금필의 모습은 웅건하면서도 멋있었다. 거짓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그 눈빛만 보고도 처녀는 황홀해하였다. 어떤 악귀도 그 선한 눈빛앞에선 전율하여 달아나버릴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것이였다. 그 눈빛이 번뜻 번개의 섬광마냥 허공을 가를 때는 또 어떨까?! 이 세상의 불의가 모조리 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날려가버릴것만 같았다.

사람의 됬됨은 그의 눈빛만 보고도 알수 있다는것을 처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속에선 이미 사랑의 꽃망울이 부풀대로 부풀어서 지금 막 터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던것이다. 동생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언니로서 그 정상이 너무도 가공하여 더는 어쩔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처럼 금필을 찾아온것이였다.

허나 금필은 쉽게 답을 주지 못하였다.

《난 지금 군령을 받은 몸이오니 이러시면 안되오이다.》

금필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밤새 다시금 생각을 모아보았소이다. 나리와 떨어지면 우린 죽소이다. 거절하시려거든 우릴 죽이고 가소이다.》

금필은 이들이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해보고 결심을 굳힌것을 알수 있었다. 아직은 이곳이 전장인데다 언제건 견훤에게 다시 빼앗길지도 모를 곳이었다.

《이 몸은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군사이오이다. 거기서도 아시다싶이 군사의 일이란 앞날을 기약할수가 없는것이오니 귀한 옥체를 함부로 내던지려 마시고 단념하시오이다.》

금필이 거듭 거절하자 언니는 한결을 물러섰다.

《하오면... 동생을 내인으로 받아주지 못하시겠으면 우리를 심부름꾼으로라도 받아주옵소서. 일생 나리의 시중을 들며 살겠나이다.》

금필은 난감해졌다. 사람을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잘 알고있었다. 녀인에 한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금필은 녀성을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이였다. 전장을 중횡무진하는 속에서도 얼핏 길가에서 여기는 녀인들조차 그는 무심히 보지 않았다. 저 녀인

이 혹시 나에게 젖을 물려준 고마운 그 녀인은 아닌지... 아니면 그 후손일는지도... 이 파란만장의 세월속에서도 가냘픈 그 몸으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이악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집안을 지켜가는 녀인들... 전란에 휘말려 떠나간 남정네들이 이름모를 들판에 쓰러져갈 때 뒤이어 오는 그 모든 고통을 말없이 받아안으며 후대를 낳아 키우고 가문을 지키고 나라를 받들어가는 그들이었다. 실은 이들에 의해 향토가, 나라가 지켜지는게 아닌가. 이 하늘아래 사람 사는 세상이 존재하게 하는 크낙한 힘이 되어주는 녀인들, 이들의 머리우에 평화로운 삶이 깃들게 하고 자손만대 번영을 이루게 해야 한다. 그 길은 겨레를 하나로 되게 할 때 비로소 열린다. 금필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여 그는 녀인을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하루밤 거치고 날밖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경멸하였다. 하물며 생명의 은인인 이들임에야...

금필은 자기의 일생에서 중요한 결심을 내려야 할 시각이 닥쳐왔음을 깨달았다. 사내대장부로 나서 반드시 겪어야만 할 일, 인생의 반려자를 정해야 하는 일에 부닥친것이였다. 금필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중소이다. 송악에 가서 우리 형님과 의논하고 후에 알려주겠소이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소이다.》

비로소 두 녀인은 길을 내주었다.

《그사이 몸성히들 계시오.》

금필은 말을 달렸다.

자매는 이윽도록 멀어져가는 금필을 바래우고 서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있었다. ...

금필은 부여성을 떠나 사흘만에 정주에 도착했다.

포구엔 백여척이나 되는 배들이 촘촘히 떠있었다.

능산과 술희가 먼저 달려나왔다.

《금필형님!》

《능산형! 술희야!》

그들은 서로 얼싸안았다.

지금 이곳 정주포구에서는 궁예의 령으로 수군이 보강되고있었다. 목포와 금성(전라남도 라주)을 치자는 왕건의 제의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형님이 끝내 궁예를 설복했구나! …)

금필은 환성을 올렸다. 그게 언제던가… 그래, 지난해 여름이지.

…

왕건의 응원으로 부여성이 다시금 함락된 그때 금필은 왕건에게 이런 제의를 했었다.

《형님! 이번 부여성싸움을 치른 뒤에 내 좀 생각해본것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소이까?》

《무슨 생각을 했나. 어서 말을 하라구, 어서!》

《이번 부여성공략때 우리가 금강하구로 수군을 올리밀었다라면 싸움이 한결 수월했으리란 생각을 했소이다. 아닌게아니라 우린 지금 술한 수군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이렇다하게 썩먹지 못하고있지 않소이까.》

금필이 수군을 썩먹어야 하리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된것은 이후에 식량기근을 타개하려고 식렴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가 배길로 쌀을 날라다 준 때였었다.

《정말 그렇구만! 동생!》

왕건은 그때 금필의 말을 듣고 철써덕 무릎까지 쳤었다.

《아무때건 크게 쓸 때를 노려 내 지금껏 살만 찌우고있지만… 그래, 동생생각엔 어떻게 썩먹으면 좋을것 같은가?》

《견훤의 옆구리를 바다로 해서 한번 쳐보는게 어떨가요?》

《바다쪽으로?! … 음… 해볼만 한 일이네. 아니, 꼭 해야 할 일이네. 그렇다면… 후백제의 어디쯤 쳐볼까?!》

《울포(군산)나 옥포(김제)가 어떨는지… 하기가 바다는 형님이 더 잘 아시니…》

《울포나 옥포라… 이왕이면 동생! 목포가 어떤가?》

《목포라 하였소이까?》

《그렇네. 강진이나 려수 같은 후백제의 남해안은 너무 멀고 울포나 옥포는 너무 가깝네. 그러고보면 목포가 그중 적합해. 후백제의 영치 한쪽을 타고왔으면 그건 전략상으로 여간 의의가 크게 아니잖은가!》

《정말 그렇소이다. 형님!》

금필은 자기가 궁냥한것을 왕건이 너무도 크게 가치를 쳐나가는데 일순 얼떠름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십분 가능한 일이었으며 잘 꾸며서 감쪽같이 해제끼면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궁예가 이를 받아물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궁예대왕이 말을 들을까?》

《어떻게든 받아물게 해야지요. 그건 형님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구나. 동생은 오늘 정말 기막힌 생각을 해냈소. 장하오, 장해!》

왕건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궁예가 수락을 하겠는가고 걱정은 하였지만...

예견했던바대로 궁예는 왕건의 후백제의 영치계를 떼어내자는 제의에 처음엔 어안이 병병해서 도리질부터 하였다.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공상을 하고있다고...

그런 궁예를 왕건은 꾸준하게 설득시켰다.

지금 견훤의 생각은 온통 북쪽과 동쪽으로 쏠려있다. 북으로는 마진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고 동쪽으로는 신라를 때먹기 위해서다. 서와 남은 완전히 뒤전에 두고있다. 이런 때에 후백제 서남의 땅을 치면 어렵지 않게 취할수가 있다. 이렇게만 되면 전략적으로도 완전한 우위를 차지할수 있을것이다. ...

그제서야 궁예는 응하게 되었으며 하여 금필이 왕건과 함께 착상한 야심만만한 이 작전이 지금 빛을 보려 하고있는 것이었다.

신심을 가진 궁예는 며칠전에 제가 직접 포구에까지 나와 준비하게 늘어선 배들과 조련을 끝내고 대기하고있는 5천의 군사를 보고는 입

이 벙글썩해서 왕건에게 연신 치하를 아끼지 않았었다. …

금필은 왕건과 만난 자리에서 견훤이 신라의 진주를 타고갔으려고 출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북으로는 올려밀지 못해도 동남쪽으로는 몸집을 늘구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견훤이 자리를 뜬 지금이야말로 맞춤형 기회가 아닐수 없었다.

아닐세라 궁예는 마침내 왕건에게 출전령을 내렸다.

왕건의 부장들인 금필과 술희 그리고 능산이까지 모두 불러다가 붙여주었다. 이외에도 왕건수하에 홍유, 배현경, 종훈, 김언, 김락, 리흔암이까지 배속시켰다.

궁예는 왕건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었다.

왕건의 금성공략을 두손들어 지지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 아지태와 가려 두 모사들이었다.

궁예는 이번 공략을 절대비밀에 붙이고있었으므로 조정의 대신들중에서는 류천궁을 제외하고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지태와 가려가 금성공략을 지지한 리유는 단 한가지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번 싸움에서 왕건이 패하여 죽거나 하다못해 망신이라도 당하는게 소원이었던것이다.

이들은 다 왕건의 금성공략이 성공하기 어려운 모험이라고 단정하고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두고봐야 알 일이었다.

왕건은 조용히 출전령을 내렸다. …

궁예의 대병력이 왕건의 지휘하에 바다길로 내려온다는 긴급정보를 받아안은 견훤의 생각은 착잡했다.

이것들이 어찌자는걸까? 과연 무슨 속셈으로 배길을 타는걸까?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았으나 신통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바다길이 제 죽을 곳인줄 알기나 하고 덤벼드는가? 의문이 커지는 속에 견훤은 소스라쳐 놀랐다. 궁예의 모험이 백에 하나 성공하는 경우 그것은 후백제에 무서운 타격으로 될것이기때문이었다. 결국 후백제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서원경 서쪽지역을 보란듯이 깔고앉아있던 유금필이 소환되어갔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알아보았어야 했다. 서원경 남쪽을 공격하였던 리혼암이도 되돌아갔다 하니 필경 그 무리에 끼였을것이 분명했다.

마진군의 총대장이 왕건이라는 사실과 거기에 왕건의 두뇌이자 한쪽팔과 같은 유금필이 분명 합세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하니 견훤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한강 남쪽에서 금강까지의 드넓은 땅을 두석달안팎에 타고앉은 맹장들이었다. 그들은 세해전에 벌써 견훤이 침만 흘리면서 바라만 보고있던 증원경과 서원경을 눈감박할새 타고 앉아 후백제와 신라는 물론 견훤 자기를 숨도 바로 쉬지 못하게 놀려놓고만 위인들이었던것이다.

견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것을 절감했다.

그런데 견훤수하의 장수들은 코웃음을 치고있었다.

륙지에선 산도 있고 숲도 있어 요리조리 숨어드는터에 대적하기가 힘들었지만 바다우에 등실 뜬것들을 족치는게 무슨 큰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걱정마시오이다. 물우에 뜬 적을 소멸하기란 손바닥에 올라붙은 파리를 때려잡기만큼박엔 안되는 일이오이다. 와하하...》

후백제의 수군대장인 능창이 희뻑게 큰소리치며 나섰다.

《그래 너희들은 왕건의 공격방향이 어디일것 같으냐?》

견훤의 물음에 능창이 대답했다.

《울포 아니면 옥포일것이오이다. 제까짓것들이 그 이상이야 내려 오겠소이까?》

《아니다, 분명 목포라고 했다.》

견훤이 눈을 흘기였다.

《믿어지지 않소이다.》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뇨?》

《그들이 목포까지 내려온다 하면 어떻게 살아돌아가겠소이까? 우

리 수군이 그들의 허리를 토막내어 먹어치우겠으니 말이오이다.»

《너무 장담말야. 상대를 홀시하면 쉽게 패할수 있느니라.»

견훤은 여전히 걱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있었다.

《진짜로 상대를 홀시하는것은 바로 그들이로소이다. 만약에 그들이 목포까지 내려온다 하면 우리의 수군에 완전히 포위되고말것이온즉 그물에 든 고기가 살기를 바랄수 있겠소이까?》

《그들의 배가 자그만치 100여척이라고 한다, 100여척!》

견훤이 구체적인 병선의 수자를 들어서야 능창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100여척이라 하셨소이까?》

《그렇다. 우리와 일대일이다. 물우에서 일대일이 승산이 있을것 같으냐? 아무리 제 바다에서 싸운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기에 물에서도 협공을 해야 할것이오이다. 바다는 물론이고 물에도 방어선을 안쪽깊이까지 촘촘히 잡아 진을 쳐야 할줄 아오이다.»

대장수 공직이 끼어들었다.

《철저하게 바다우에서 소멸해야 하오이다. 그들이 땅에 붙으면 싸움은 진것이오이다.»

견훤의 모사인 능환은 또 저대로 고집했다.

《그대는 우릴 너무 얄잡아보는게 아니요?》

대장수로 임명된 장수 공직과 그 대리인인 박영규가 동시에 능환을 흘겨보며 언짢다는듯 말했다.

《나는 땅에 붙기 전에 소멸해야 한다고 보오.»

이번엔 능창이 바다싸움은 제 몫이라는듯 껍 소리질렀다. 그는 근본부터가 바다사람이고 견훤의 수하에 들기 썩 이전부터 이곳 바다가 반란군의 두령노릇을 하였었다. 견훤에게 후백제의 수군을 만들어 바친 공으로 그는 수군의 대장자리를 타고앉아있었다.

《격정마시오. 수군대장은 싸우다 힘들면 일부러라도 그들을 물에 올려놓으시오. 우리 몫을 남겨두라 그 말씀이요.»

박영규는 얼마전에 신라 한 귀퉁이를 떼내는데 성공한것을 가지고 큰소리치고있었다.

《입씨름은 그만하고 싸울 준비나 착실하게 하라. 수군은 당장에 거슬러올라가서 왕건의 수군을 우리 경내 밖에서부터 미리막도록 하라. 절반은 떼내서 목포앞바다를 막을것이다.》

《알아들었소이다.》

일단 견훤이 령을 내리자 능창도 군말없이 복종했다.

《보군은 해안에서부터 두겹으로 방어선을 치라. 목포앞바다에는 세겹으로 방어진을 칠것이다.》

《알겠소이다.》

장수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

첫 싸움은 뜻밖에도 무안반도 앞바다에서 벌어졌다.

무안은 반도가 길다랗게 바다로 나와있는 곳인데 금성의 코앞이었다. 무안반도는 그 주변에 임자도, 하의도, 고이도 등 크고작은 섬들이 백이 넘게 널려져있는 곳이었다.

후백제수군대장 능창은 허세와 함께 교활한 구석도 있는 작자였다. 그는 수군으로 왕건을 앞질러 막으라는 견훤의 령에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주변의 섬들에 군사를 조금씩 떨구어 북병시켰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랐다. 아마도 왕건에게 밀리우면 쟁싸게 옆으로 빠져 물으로 올라붙으려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그런데 이들이 금필의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싸움이 붙은것이였다.

금필은 왕건의 명령으로 목포로 내려오는 도중에 일부 군사를 떼여서 주변의 섬들을 하나하나 타고왔던중이였다.

왕건은 기본력량을 목포앞바다에 집결시켜 견훤의 주력을 끌어붙인 뒤에 금필로 하여금 금성으로 우회해들어가도록 작전안을 짜고있었다. 그것이 능창스러운 능창의 수와 부딪쳐 첫 접전으로 되고만것이였다.

싸움은 시작부터 재미있게 번져가고있었다.

견훤은 이것을 왕건의 기만공격으로 착각하고 령량을 보강해주지 않은채 목포앞만 버티고있은것이였다.

왕건과 시시각각으로 런계를 취할수 없는 조건에서 금필은 주도적으로 공격을 확대해나갔다. 주변의 섬들을 수색한 뒤에 무안반도에 올라 육로로 질풍같이 쳐들어갔다.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왕건이 금필에게 군사를 보강해주어 그의 진격을 적극 밀어주게 하였다. 그런데도 견훤은 왕건의 기만술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목포앞바다만 지키고있었다.

또 하루가 지난 뒤에야 견훤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왕건이 왜 수군으로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있을까? 왕건을 앞지르고 보낸 능창의 수군은 어디로 가있는가? 이런 때에 능창이 바다에서 왕건수군의 옆구리를 찌셔대면 얼마나 좋겠는가.

능창은 그날 저녁에야 목포로 되돌아왔다. 왕건의 수군을 앞지르기는커녕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며 투덜거리던 그는 목포앞바다에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마진군의 배들을 보자 눈이 휘둥그래졌다. 저들이 어디로 해서 왔단 말인가?

그는 왕건이 해안가까이로가 아니라 바다 멀리로 우회해서 온것을 알수가 없었다.

견훤은 목포지휘처로 돌아온 능창을 다몰아 되돌려세웠다. 이제라도 바다로 나가 왕건의 수군을 옆으로 들이치라는것이였다.

능창은 부랴부랴 되돌아섰다.

능창이 왕건의 수군을 옆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자 견훤도 포구에 둔 쳐놓았던 수군을 공격으로 내몰았다. 앞뒤협공이나 좌우협공이면 좋았을테지만 그래도 정면과 한 익측에 의한 협공이니 왕건의 삼자진대형공격보다는 훨씬 유리한 공격이였다.

그래서인지 왕건의 수군도 화살전만 벌리다가 물러서기 시작했다.

(먹은 나이는 속이지 못하겠는걸!)

견훤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왕건의 후진을 퇴각으로 착각했던것이다.

한참 기세를 울리며 쫓아가던 견훤의 수군이 주춤주춤 제자리돌이를 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육지쪽으로 불어치기 시작하더니 밀물

이 밀려들었다.

갑자기 불어오는 찬바람에 견훤은 두눈을 찡그렸다.

날씨마저 변덕스레 왕건에게 유리해지고있었다. 그는 이것이 왕건이 진작부터 계획해온것이라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륙지에서만 살아온 견훤은 바다속내를 왕건만큼 몰랐다. 허나 왕건은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바다를 적잖게 누벼온터이라 보름을 주기로 반복하는 밀물과 썰물의 세기와 그에 따르는 날씨의 변화까지도 환히 알고있었다.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있는것이였다.

견훤의 군사들이 쏘는 화살이 공중 뜨며 헤갈라지는 반면에 왕건의 수군이 쏘는 화살은 맵싸면서도 백발백중하였다.

왕건의 수군은 질풍같이 공격해오는 반면에 견훤의 수군은 제자리돌이만 하고있었다. 견훤은 퇴각명령을 내리지 않을수 없음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왕건의 수군이 바람을 등진채 촛살같이 내달아오며 견훤 수군의 배들을 무자비하게 받아넘기고있었다. 거기에서 왕건의 수군은 무엇인가 시꺼먼 기름 같은것을 동이채로 견훤 수군의 배안에 던져넣고있었다. 잇달아 불뭉치들을 던졌다. 견훤의 배들에 불이 달리기 시작했다.

동이채로 던져넣는것은 솔기름이였다. 화공전술을 쓰는것이였다.

견훤의 배들은 벌써 절반나마 불이 달렸다. 더러는 깨여지고 부서지며 물속에 잠겨들어가고있었다.

물속에 빠져들며 아우성치는 후백제군사들의 처참한 모습이 견훤의 눈앞에 펼쳐졌다.

견훤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가 퇴각명령을 내릴 사이도 없이 수군은 이미 맞으며 죽으며 퇴각을 거듭하고있었다.

얼마쯤 지나서 왕건의 군사들이 물에 오르기 시작했다.

해안에 전개한 견훤의 보군은 화살조차 마음대로 쓸수 없었다. 도망치는 자기쪽 군사들이 쫓아오는 왕건의 군사들을 가리워주고있기 때문이였다.

《화살을 날려라!》

무턱대고 고태치는 소리에 살을 날리면 영낙없이 제편부터 맞아죽고있었다.

(패했구나! ...)

견훤은 땅을 쳤다.

듣던바 그대로 왕건은 명장이었다. 견훤은 경황없이 내뺄는 속에서도 왕건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목포에서 쫓기워 백리길을 달려온 견훤은 무안고을어귀에서 또다시 금필이 지휘하는 군사들의 매복에 걸려들었다.

《견훤을 사로잡으라!》

불몽치를 휘두르며 길옆 숲속을 이잡듯 훑어대는 금필의 군사들앞에서 견훤은 또 한번 전를했다.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뚫고나가지 못하면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 될판이었다.

《금필부장나리! 벌써 새나간듯 하옵나이다.》

《견훤을 꼭 잡아야 한다. 좀더 나가보자!》

역대우같은 사나이 하나가 군사무리를 이끌고있었다.

(뿔, 금필! ...)

견훤은 떠들썩 부르며 화답하는 군사들속에서 금필의 얼굴을 띄어볼수가 있었다.

(저놈이 부여성을 공략해서 내 머리꼭뒤편을 누르더니 오늘은 무안으로 기습해서 내 발목을 때리는구나!)

견훤은 탄식했다.

《어찌다가 이런 꼴이 되었더라 말이나!》

견훤을 부축이던 능환과 능창의 얼굴에도 비애가 가득차있었다.

능창은 견훤이만 완산주로 데리고 간 다음에는 칼로 목을 베어 죽였다며 엉엉 울어댔다. 그가 그 혼잡속에서 어떻게 배에서 내려 견훤을 찾아왔는지는 귀신이나 알노릇이었다.

금필이 군사들을 휘몰아 한차례 수색을 하고 간 뒤에야 견훤은 일

어섰다.

《이것들아! 이렇게 앉아 죽겠느냐? 빨리 도성으로 가서 사태를 돌려세울 방도를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이 룩실할것들!》

견훤은 울음절반, 명령절반 악에 받쳐 부르짖었다. ...

한편 왕건은 승리를 경축하여 주연을 차리었다.

송악의 궁예에게 승전의 보고를 날린 뒤였다.

왕건의 금성공략구상은 삼일만에 현실로 되었다. 정주포구를 떠난 날부터 세면 옛새만에 얻어진 대승리였다.

왕건은 종례와 오다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다린은 왕건자신이 열다섯살 되는 해에 부친과 함께 목포에 들렀을 때 이미 만나본 사이였다. 소금을 만들어 파는 오다린은 장사 거래로 룡건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있었다. 그때 왕건은 다섯살 잡힌 오다린의 딸을 안아주며 고와서 어쩔줄 몰라했었다. 오다린의 딸 오씨는 왕건과 열살 차이였다. 그가 바로 후날에 장화왕후로 불리워진 왕건의 둘째부인이었다.(장화왕후가 낳은 태자 무가 고려왕조의 2대왕이다.)

이번 금성공략에서 오다린의 공적이 컸다.

그는 이미전부터 왕건의 금성공략구상을 적극 찬성해준 사람이었다. 견훤의 그악스런 강박에 구워낸 소금을 군포미대신으로 말짱 빼앗기면서부터 쌓이고쌓인 반감이 마침내는 왕건을 돕는대로 이어진 그였다. 그는 이미 목포해안일대를 세밀략도로 그려 왕건에게 보내주었고 후백제의 보군과 수군중에서 목포싸움에 동원될 수가 얼마일것이라는것까지 정확히 알려주어 왕건이 승산있는 싸움을 할수 있게 도와주었다. 금성태수 종례를 포섭하여 그에게 왕건과 손을 잡도록 이끌어간것도 오다린이 한 일이었다. 이제부터 그는 마진의 땅이 된 이곳에서 왕건을 적극 도울것이였다.

종례도 학식이 있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였다.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모르지 않았지만 그는 주저없이 왕건의 편에 가담했다.

그는 후백제나 신라땅에서 나는 인물로는 절대로 세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주역을 놀수 없다고 단정하고있었다. 이 두곳은 단군 이래 겨레가 사는 령역의 한 귀퉁이에 불과한만큼 발해까지도 포함한 전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인물은 고구려땅에서 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있는 사람이 바로 종례였다. 그는 왕건이 바로 이 주역이 될수 있다고 보고있었다.

매 사람에게 손수 술을 부어주던 왕건이 금필의 앞에 와서 멈춰섰다.

《금필부장! 이번에도 수고하셨소.》

왕건의 나직한 치하에 금필은 어줍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 대장형님의 공이라고 생각하오이다.》

금필의 말을 왕건이 정정했다.

《그보다 우리 대왕전하의 공적이지.》

《지당한 말씀이로소이다.》

리흔암이 재빠르게 맞장구쳤다.

《자, 그럼 우리모두 대왕전하의 강령을 빌어 잔을 들시다.》

왕건이 술잔을 높이 들자 저마다 잔을 들었다.

(형님도 참, 언제면 궁예의 부하노릇을 견어치우겠는지...)

금필은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한달이 지나 왕건은 궁예의 부름을 받고 금성을 떠나갔다.

왕건은 떠나면서 금성을 라주라고 이름을 고쳐부르도록 하였다.(왕건이 왕이 된 후에 지어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왕건을 따라서 대다수 장수들이 떠나갔지만 금필은 몇몇 장수들과 함께 떨어졌다.

그사이 이곳의 민심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종례는 견훤에게서 받았던 금성태수관직을 그대로 차지하였고 오다린은 일약 목포성주가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다.

고을수비는 송악에서 파한 군사들이 주력이 되었다.

금필은 왕건의 추천과 궁예의 지지하에 여기서 군사들을 책임지고

이곳을 지키고있게 되었다.

얼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려운게 바로 땅이거늘 후백제의 등밀에 붙은 이 땅이 마진의 령토로 공고히 유지되는것은 전적으로 군사들이 어떻게 지키는가에 달려있었다. 금필은 이 중요한 임무를 군말없이 받아안았다.

이 시각 금필은 부여성의 림씨처녀가 자기를 찾아 송악으로 올라온것을 꿈에도 알수 없었다.

림씨처녀는 누구도 알아주는이 없는 송악으로 허위단심 찾아왔다. 도성에 이른 그는 무력대고 금필과 왕건을 찾아달라고 졸라댔다.

모두가 라주공략에 나가있는 때여서 맞아줄 사람이 없었다.

왕건의 부인 류씨가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들이었다.

그에게서 전후사연을 다 들은 류씨부인은 다정하게 림씨처녀를 이끌어 한방에서 지내였다. 류씨부인은 이 처녀가 마음씨 끈고 대가 바른데다 지혜가 있고 당돌해보이는것이 유금필과 조금도 기울지 않는 짝이라고 생각했다. 금필 당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알겠지만 왕건이 돌아오면 그와 잘 의논해서 꼭 짝을 이루어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있었다.

류씨부인이 그토록 마음쓰며 기다리던 왕건이 송악으로 돌아왔다.

궁예는 개선하는 왕건을 성밖까지 나와서 마중하였다.

왕건이 궁예에게 아뢰였다.

《목포에서 령암, 무안, 금성까지 열한개의 성을 정복하여 대왕전하의 땅으로 만들었나이다.》

《바라기 힘든 일을 하였노라. 그대의 공적 력사에 길이 남을것이로다.》

궁예는 아주 만족해하였다.

궁예가 차린 주연에 참가하고 늦어 집에 들어온 왕건앞에 세 녀인이 반기며 인사를 올리였다.

한 녀인은 부인 류씨이고 또 한 녀인은 목포 오다린의 딸 오씨처녀였다. 오다린이 왕건과의 사생동거를 약속하는 표적으로 왕건에게

거두어주기를 부탁하여 왕건이 데리고 온 처녀였다. 그는 류씨부인과 대번에 친하게 어울렸다.

왕건은 무르익은 복숭아마냥 불그레하게 물이 오른 오씨처녀의 귀염 성스런 얼굴을 피곳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쪽의 녀인은 또 누구인가? ...)

나부시 절을 하는 그 녀인은 뜻밖에도 부여성에서 본 그 림씨처녀였다.

금필을 구원해주고 완쾌시켜준 기특한 그 처녀!

《이게 누구시오! 림랑자, 나의 제수가 아니시오?!》

왕건은 기뻐하며 처녀를 제잡담 제수라고 불렀다.

《아니?! 저는...》

처녀는 당황하여 빨개진 얼굴을 어디다 건사할지 몰라 허둥대었다. 왕건의 부인 류씨의 얼굴에 미소가 어리었다. 왕건이 제수라고 짝어서 부르는것은 마음속에 이미 금필의 내인으로 정해져있었다는것을 말하는것이기때문이었다.

왕건은 호탕하게 웃어제끼며 림씨처녀에게 말을 이었다.

《이렇게 송약으로 날아오시다니... 잘 오셨소, 정말 잘 오셨소!》

왕건은 유쾌하게 웃었다.

승전의 축배에 기분이 좋아서만이 아닌것 같았다. 이 시각에도 그가 마음속으로 금필을 생각하고있는줄을 류씨부인은 알수 있었다.

《어서 들어들 가십시다.》

왕건은 세 녀인을 이끌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왕건은 림씨처녀에게서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들었다.

마진군의 공격으로 라주와 목포일대를 잃은 견훤은 리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마진군의 주력이 라주로 내려와있는것을 기회로 삼아 부여성을 다시 공격하여 점령케 했다. 분풀이를 한것이였다. 역량상 대비가 안되는 싸움에서 부득불 마진군은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성을 차지한 후백제군의 행패는 무자비했다. 금필을 구원해준 림

씨자매에 대해서는 릉지처참형을 내렸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두 자매는 성을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으나 군사들의 포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바다로 해서 송악으로 가자고 작정하고 울포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갔던 그들은 부여산성어귀에서 끝내 붙잡히고 말았다. 다행히도 제 한몸 건사할 수준의 무예는 지니고 있었던지라 두 자매는 군사들과 맞서기로 작정했다. 군사는 두명뿐이어서 일대일 격투를 어렵지 않게 치를 수 있었다. 다시금 줄달음을 놓고 있는 이들에게 성우에서 군사들이 화살을 어지러이 날리는 바람에 불행하게도 언니가 맞고 쓰러졌다. 산중턱을 에워둘러간 성벽쪽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더니 한무리의 군사들이 달려나왔다. 사로잡으려는 것이었다.

이때 피흐르는 가슴을 움켜쥔 채 언니가 부르짖었다.

《애야, 어서 뛰거라! 꼭 금필장수를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아! 사랑하는 동생아!》

그리고 나서 성밑 골짜기의 내가에 몸을 던지었다.

《언니야! …》

불쌍한 언니였다. 남편을 여의고 혈분이마저 병으로 잃고 혈혈단신이 된 언니, 언니가 죽다니…

림씨처녀는 목놓아 울었다. 울면서 뛰고 또 뛰며 천신만고 끝에 끝내 송악으로 온 것이었다. …

《우리 같이 사십시다. 금필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회초리를 쳐서라도 살게 하오리다.》

왕건은 림씨처녀를 위로했다.

《으—흫, 어르신네님!》

류씨부인의 무릎에 묻었던 얼굴을 들며 처녀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눈물에 젖은 처녀의 얼굴에 흥조가 비껴올랐다.

다음해(904년) 여름에 부여성은 금필에게 다시금 함락되었다.

왕건은 궁예에게 전횡의 령토확장기도를 꺾어놓는데서 부여성을 다시 탈환해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루차 설명하여 승인을 받아냈었다. 금필은 군사를 이끌어 사흘만에 부여성을 타고왔다. 금필과 나

란히 부여성에 입성한 림씨는 언니가 몸을 던진 내가의 너럭바위우에
앉아 다시금 언니를 애타게 불렀다.

이후부터 이 내가를 림씨의 성을 따서 림천으로 불렀다.

금필은 부여산성에 거처하면서 림씨부인을 위로했다.

금필은 이곳에 있는 기간 민심을 위로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
다. 림씨의 언니가 부르짖던 말이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울리
고있었던 까닭이었다. 그는 휘하군사들에게 복수심에 의한 그 어떤
행패질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군사는 싸움으로 자기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만큼 어쩔수 없다치
더라도 백성들은 절대로 싸움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그
의 신조였다.

부여고를 백성들은 금필의 처사에 감지덕지해하였다.

금필에게 부여성주관직을 내려 영구히 있게 해달라고 상주까지 하
였다.

그러나 금필은 부여고를 한곳만 살피고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나라통일의 중심위치에서 주역의 일익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이 없는 재능과 실력의 소유자가 되었던것이다.

그는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금 부여성을 떠나갔다.

그러나 부여성사람들은 금필을 잊지 못해하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곳 사람들은 부여산성안에 유금필의 사당
을 지어놓고 봄, 가을 두차례 어김없이 제사를 지내었다. 금필의 혈
족후손도 아닌 타성받이들이 조상의 풍속을 이어 유금필을 모시고
있는것이였다.

부여산성밧을 흐르는 림천기슭 도로옆에는 하마비도 세웠다.

《대소인을 막론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말에서 내릴지
어다.》

그 누구든 유금필장수를 잊지 말고 오래오래 추억하라는 의미에
서였다. ...

또 한해가 지나가 새해 905년이 되였다.

금필은 목포에서 설날을 맞이하였다.

눈이 내리고있었다. 이해의 첫눈이었다. 소담한 눈송이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내려앉는다. 앉자마자 녹아서 땅을 적셔주었다. 송악과는 달리 이곳은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았다. 날씨가 더워 곧 녹아버리기때문이었다.

금필은 지난 한해도 혈전속에 보냈다.

라주지역을 차지한 뒤 그 방비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전원은 틈만 보이면 접어들었다. 때로는 철기병으로 기습해와서 평암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달아나기도 하였다. 성을 함락하지는 못해도 공포라도 주자는것이였다. 저희들이 다 죽지 않았다는걸 보여주자는 속심 같았다.

이전에는 한차례의 전투끝에는 발편잡이라는데 있었지만 목포와 라주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라주성은 말할것도 없고 주변 10여개 고을을 지켜선 군사들모두가 잘 때 허리끈도 풀어놓지 못하였다.

금필은 이곳에서도 송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거의다 알고있었다. 며칠전에도 술희가 찾아와서 왕건이 보낸 편지를 전해주고 갔다.

왕건은 여전히 종횡무진하고있었다.

소문에는 왕건이 사람이 달라져 안방재미에만 빠져있다는등 사냥에만 정신을 판다는등 하지만 그는 결코 누구의 말처럼 세월이나 낡은 송악의 《강태공》이 아니였다.

지난해 설달에 패강 서쪽지역으로 진출한 왕건은 통강, 한천, 평원 등 고을을 복속시키고 설전으로 돌아왔다.

금필은 왕건이 보낸 편지를 보며 흐뭇해했다. 그곳 또한 앞으로는 궁예의 영역이 아니라 왕건의 영역으로 될 땅이라고 믿는때문이었다.

금필은 썩 이전에 궁예와 첫 대면을 했을 때부터 애초에 그를 믿지 않았었다.

그를 신뢰하지 않는 까닭은 우선 그의 몸전체에 습배여있는 위선때문이었다. 겉으로는 소박함과 선량함을 애써 표방하고있으나 한꺼풀만 더 벗기고 들어가보면 살기만 풍길뿐이었다.

그래도 한때는 두령으로 모셨던 량길을 악독스레 제거한것만 보아도 궁예라는 인물의 인품을 알수 있지 않는가. 어디 그뿐인가. 고구려재건의 기치는 어디다 팔아먹고 국호까지 마진이니 뭐니 하고 고쳐부르게 하지 않는가. 이게 신의가 있는 놈인가. 그래도 제딴에는 즐창 민심을 뇌까리면서 민심을 이다지나 우롱할수 있는가. 민심을 배반하고 제명을 다 살것 같은가. 금필은 이런 생각으로 해서 궁예를 미워했고 그가 오래가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해버리고만것이었다.

왕건의 편지에는 발해가 지금 주변나라들의 각축전에 말려들어 숨가빠하고있다는 불쾌한 소식도 섞여있었다.

(발해! 고구려를 이어 동족의 슬기와 위세를 련련히 이어온 동족의 나라! 좀 있으면 우리와 손을 맞잡고 천하에 다시한번 그 위용을 펼쳐야 할 겨레의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니…)

금필은 가슴이 답답해났다. 생각 같아선 당장에 뛰쳐나가 료하일대를 종횡무진하고싶었다.

이 시기 발해 서쪽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드넓은 광활한 대지는 또다시 분쟁과 혈투의 마당으로 되고있었다.

당나라는 황후 무측천의 전횡으로 오히려 국력을 강화하는듯 기세를 올리더니 어느 사이 조락하여 몇갈래로 갈라져 싸우다 지친 상태였다.

거란은 대추장 야를아보기가 거란8부를 통합한 뒤 발해를 휘저어 들어가다가 잠시 돌아서서 지금은 중원대륙을 노려보고있는 판이었다.

발해는 자기 령역에 분산되어 살고있는 갈래가 무수한 말갈족들이 어느 갈래는 거란에, 어느 갈래는 당나라에, 또 한갈래는 돌궐에 가붙으면서 내륙과 변방을 소란케 하여 발해침략의 구실이나 만들어 주는통에 가뜰이나 거란과의 싸움에 지친 몸을 겨우 가누고있었다.

(세월이여! 너 잠시 흐름을 멈추지 않으려나?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갈것이니 기다려다오. 조상의 땅아!)

금필은 북녘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다.